

전남도 올 최고 시책은 ‘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

코로나19 극복 창의적 아이디어
학생 41만5000명에 농산물 배달
전국 전역 확산...미국서도 호평
산업단지 대개조 등은 우수시책

전남도가 올해 추진한 주요시책 가운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 사업’이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어 학교급식재료를 가정으로 보내자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많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이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같은 결과 꾸러미 사업으로 160억원 상당 농산물이 41만5000명의 학생가정에 공급됐으며, 친환경농산물 1428t의 소비는 물론 4000명의 공급·배출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유발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 학교, 농가, 공급업체 모두 만족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전례 없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에서 당정협의 회를 거쳐 서울, 경기 등 국내 전역으로 확산돼 전국 531만 농산물꾸러미의 롤 모델이 됐다. 또 미국(농무부 USDA)도 이를 적용해 푸드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시책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시책 심사는 내부심사와 함께 도의원, 정

책자문위원, 도정평가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외부심사까지 이뤄졌으며, 창의성과 도정발전 기여도, 효과성, 노력도, 파급효과, 도민수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이 외에 우수시책으로는 ▲1조2천억, ‘산업단지 대개조’ 최초 정부 공모사업 확정 추진 ▲지방정부 세계 최초!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구축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유치,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꾸다 ▲농업인·학생·학부모를 충족해 하는 행복상자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등 4건이 이름을 올렸다.

1조2000억 규모의 ‘산업단지대개조’ 사업은 산단 노후화로 경쟁력 하락 등 성장 한계에 직면한 광양만권 산단이 정부 최초의 전국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저탄소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해 일자리 창출, 생산액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장려시책 5건으로는 ‘남도장터 200억 찍고, 300억 go!go!’와 ‘바이럴 영상을 활용한 유튜브 도정 홍보’, ‘한국판 뉴딜 대응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유치 성공’, ‘화재 시 대피약자 도우미 재실알림판 ON’ 등이 선정됐다.

외부심사위원장을 맡은 문제주 목포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창의적이고 훌륭한 시책들이 많이 나왔다”며 “전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전라남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봉사활동에 쓰세요”
남해종합건설 차량 기증



최근 지역건설업체인 남해종합건설이 전남도자원봉사센터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쓰일 스탠덱스 11인승 승합 차량을 기증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대표, 김재성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 허강숙 전남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제공>

전남테크노파크 부패방지 시책 최우수상

전남도 산하 18개 공직단체 평가

(제)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도의 ‘2020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동안 전남도 18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부패방지 계획 및 실행 7개 지표, 반부패 시책 성과 및 확산 4개 지표에 대해 기관별 시책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2020년 전남도 공직유관단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다. 전남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2019년 2등급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018년 유동국 원장 취임 이후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고강도

경영 혁신을 진행했으며, 재단 핵심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클린 컴퍼니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반부패경영체계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2019년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IOS 37001) 인증서를 취득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전국테크노파크 최초로 취득했다.

특히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체청렴 교육을 부서별로 매월 실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그간의 고강도 경영혁신과 청렴직장 만들기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리다”며 “전남테크노파크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2021년 130개 섬에 594억원을 투입해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40억원을 들여 대흑산도 관광객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신안군 대흑산도.

전남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박차

내년 113개 섬 대상 594억 투입

여수 묘도 테마공원 등 190개 사업

전남도는 내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94억원을 투입하고,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13개 섬을 대상으로 190개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신규 사업은 여수시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60억원)을 비롯 신안군 대흑산도 관광객 휴식공원(40억원), 해남군 송지 어불도 마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25억원) 등이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업 대상 도서에 대한 10년 단위 개발계획으로, 지난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도서종합개발(2018~2027)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생

활과 생산, 소득, 문화, 체육, 관광, 복지 등 섬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개선하고 있다.

전남도의 개발대상도서는 전국 371개 중 58%인 21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4차 개발 기간 동안 전국 1조 4972억원의 48.5%인 7262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어항시설 정비와 함께 마을 진입도로 및 배수로 개선, 연도교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해안탐방로와 테마공원 조성, 관광 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섬 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써왔다.

박용학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섬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

내년부터 전남도내 전 지역으로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내년 시범사업 확대는 전남도가 친환경 유기농 인증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게 도내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물론 소비까지 함께 이뤄지도록 그동안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 건의한 결과 이뤄졌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태어날 미래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한편 친환경 농가들의 판로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로, 소득에 상관없이 구입비

의 20%만 자부담(9만6000원)하면 1년간 최대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총 100여 가지로,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비롯 과일, 신선채소와 무항생제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기농공식품 등 임산부가 선호한 품목으로 구성된다.

공급을 희망한 도내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및 출산증명서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소평물인 Eco eMall(www.ecomall.com)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역량 있는 공급업체를 이달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